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면 이때부터 가사의 공평한 분담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다. 한 가정을 이룬 남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가사와 더불어 육아의 공평한 분담에 대해 끊임 없이 논의하게 된다. 우리 가정은 이 논의를 4번이나 거쳐 현재의 양성평등하고 공평한 가사, 육아 분담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아이 넷을 낳고 키울 수 있게 해 준 장본인인 우리 남편과의 공평한 가사, 육아 분담의 시작은 육아도 살림도 일정 부분을 뚝 떼서 각각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는 것에서 시작된다. 한 사람이 주로 어떤 일을 맡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정, 부 형태가 아니라 한 가지 일에는 한 명의 담당자만 존재한다. 일을 나누는 기준은 효율과 선호다. 각자 잘하는 걸 한다. 내가 전업주부였을 때와 워킹맘이 된 지금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남편과 나는 철저하게 역할이 분담 되어있다. 평일 아침, 저녁 식사 준비는 내 담당, 주말 아침 식사 준비는 남편이다. 주말 점심, 저녁은 교회에서 먹거나 가족 행사로 외식하는 경우가 있어 유동적이지만 집에서 먹게 되는 경우 점심 식사 준비는 남편, 저녁 식사 준비는 내가 한다. 남편은 스파게티나 볶음밥 등 일품요리를 잘 만들고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 주말에 먹는 특별한 음식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고 뿌듯함을 느낀다고 한다. 평일에 내가 아침, 저녁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주말 아침, 점심, 저녁 설거지는 남편의 몫이다. 이렇게 일을 나눈 배경을 소개하자면 우선, 남편은 아침잠이 없는 편이다. 늦잠을 잘 수 있는 주말에도 일찍 일어난다. 그래서 남편이 주말 아침 담당이 되었다. 아침 잠이 많은 내가 평일 아침 담당인 이유는 출근 시간이 남편보다 늦고 회사가 가깝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다. 빨래는 내가 담당 한다. 옷뿐만 아니라 이불, 커튼, 소파, 인형 등의 모든 빨래는 모두 내 담당이다. 이유는 내가 집안일 중 그나마 빨래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빨래가 집안일 중 가장 성취감을 크게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 빨래 개는 것은 빨래 반장인 첫째의 주도하에 아이들이 담당한다.

남편은 화장실 청소, 음식물 처리, 가전을 담당을 담당하는 기계설비부다. 나는 분리수거 담당이다. 분리수거와 음식물은 항상 같이 나가서 버리거나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간다. 남편은 비위가 좋은 편이고 나보다 힘이 세고 기계를 잘 다루기 때문에 집안일 중 굵은일처럼 느껴지는 일을 도맡아 한다. 이 점은 남편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남편은 주로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있는 집안일, 나는 보통 빈도가 높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은 집안일들을 매일매일 한다. 그리고 나는 구매팀으로 집안의 모든 물건이나 음식을 구매하고 가게부를 쓴다. 결혼하고 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를 낳고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기도 했고 맞벌이인 지금도 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퇴근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어 자연스럽게 쪽 담당하게 되었다. 남자라서, 여자라서가 아니라 출퇴근 시간, 선호도, 차별이 아닌 남녀의 차이에 따라 가사를 분담한다.

우리 부부는 운동도 나눠서 한다. 남편은 평일 월, 수, 금, 나는 화, 목에 각자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 시간은 저녁 먹고 나서 19시~21시다. 나는 화, 목 주 2회라 19시부터 21시까지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남편은 월, 수, 금 주 3회로 20시부터 21시까지 1시간 정도 운동을 한다. 둘 다 운동을 빠지는 날은 거의 없다. 남편은 가끔 시간이 나면 헬스장을 가기도 한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왔고 다는 35세까지 운동과 높은 벽을 쌓고 살았다. 넷째가 태어나고 6개월쯤 지나자 이제 운동을 해야한다며 남편이 내 등을 떠밀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운동이 지금

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아이가 넷이지만 부부가 둘 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모든 가정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가 있어도 둘 정도 지나면 아빠들은 축구나 골프 등 운동모임을 즐기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엄마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야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아쉽다. 우리 부부가 같은 센터에서 운동을 하는데 아이가 넷인 엄마, 아빠가 운동에 나오는 걸 모두 놀랍게 생각한다. 그래서 부부가 요일을 나눠서 운동을 다닌다고 하면 모두 신기해하면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한다. ‘내가 아이 키울 때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다. 우리 부부가 아이 네 명에 아직 아이들이 초등학생에서~4살 임에도 운동을 하며 심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 모두 양성평등에 기반한 일상 속 공평한 역할 분담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가사, 운동에 이어 육아도 분담한다. 초등학생이 된 첫째, 둘째, 셋째, 세 아이는 크게 손이 가는 일은 없지만 학교에서 오는 가정통신문 및 준비물, 교회 부서별 단체 채팅방, 아이들 학원 및 운동 센터 일정 관리는 내가 한다. 남편은 아직 손이 많이 가는 넷째 담당이다. 넷째 등원, 자기 전 씻기고 책 읽어주고 “잘자” 라고 하는 것까지가 역할이다. 넷째 하원은 퇴근 시간이 빠른 내가 퇴근하면서 한다. 월, 수, 금 둘째, 셋째 수영 끝나고 집으로 데려오는 건 남편 퇴근 시간과 시간이 맞아 남편이 퇴근하면서 한다. 최근에 추가 된 남편의 역할은 첫째 수학 과외인데 이건 유급이다. 이과에 공대생이었던 남편은 훌륭한 수학 선생님이다. 나는 남편에게 용돈을 더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고 남편도 용돈이 늘어나 매우 만족한다. 완벽한 윈윈이다.

우리의 모든 역할 분담은 냉정할 정도로 철저하다. 시간이 정해진 약속이나 독감과 같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면 맡은 역할은 맡은 사람이 해내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아이들도 각각 빨래, 청소, 정리 영역으로 나누어 각자 맡은 역할을 한다. 이는 용돈을 주는 근거가 된다. 나는 종종 저녁 설거지가 너무너무 하기 싫지만 남편에게 부탁하지 않고 그냥 참고 한다. 점점 책임감이 강해지는 것 같은 건 기분탓일까. 매우 드물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설거지 쿠폰을 제시하며 평일과 주말 1회 설거지를 바꿔서 할 때도 있다. 그때그때의 사정과 현평을 보아 일을 처리하는 재주. 융통성이라고 말하고 싶다.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꼭 여자가 차를 고치거나 전등을 가는 일을 하고 남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나 요리를 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건 오히려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우리 가정에 맞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의 실천 사례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각, 함께 성장하고 있다. 각자의 가정과 환경, 상황에 맞는 양성평등 실천 사례가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 작고 많은 사례가 모여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면 더욱 좋겠다.